

News

역머니무브 '주춤', 당장 대출금리 상승세 '둔화'

머니투데이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7262억원으로, 11월 말 대비 4276억원 증가하는 데 그침
예금금리가 빠르게 떨어졌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 5대 은행의 대표 예금상품 금리는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0.31%p 낮아짐

올해 가계대출 18년 만에 첫 감소... 고금리-자산시장 침체 영향

동아일보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646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09조529억 원)보다 15조4060억 원 감소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매년 말 주요 은행들로부터 받아온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는 제출받지 않기로 결정

자영업자, 이자 부담에 은행 빚 갚아도 전체 대출은 증가

데일리안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14.8조원으로 전월대비 0.3조원 감소한 반면 전체 은행의 대출 잔액은 443.5조원으로 전월 대비 0.3조원 증가
시중은행 금리가 부담스럽거나 대출을 거절당한 자영업자들이 국책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

사상 최대 이익이 퇴직 기회... 5대 은행서 올해 2400명 떠난다

조선일보

올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에서만 24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나설 예정
보통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할 경우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내년 보험료 조정 윤곽... 車보험 2%대 인하, 실손은 최대 9% 올라

조선비즈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논의 중... 이번주 중후반쯤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 내놓을 예정...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까지 내려갈 전망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적용... 실손보험료는 내년 최대 9%대 수준 인상 폭 기록할 예정...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지급보험금 규모 지속 급증에 적자 우려 때문

저축성보험 1년새 23조 '아웃'...보험사 유동성 확충은 '진행형'

머니투데이

생보사들, 올해 9월말 기준 저축성보험 보유계약액 422조 3,4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 설계사 모집 감소하는 한편 방카슈랑스로 일원화되는 추세 영향
무리한 상품 판매에도 유동성 경색 지속 중... 이에 금융당국 권고에도 채권시장에서 매도 지속 중... 올 9월 매도금액이 매수보다 약 2,800억원 더 많은 역전현상 발생

일반청약 미달 사태에 증권사들 줄줄이 스펙 상장 철회

한국경제

14일 기준 미래에셋비전 스펙 2호와 유안타 12호 스펙 두 곳이 코스닥 상장 철회... 일반청약에서 대거 미달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 중단 결정
그간 안정적 투자처로 주목받았으나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투자자로부터 외면... 증권사들, 내년으로 스펙 설립 연기... IPO 시장 회복 시기에 공모 재개 계획

당분간 금리 오른다... 파생결합사채 인기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CD금리 기조로 한 DLB 발행액이 10조원 가까이 증가... 금리 기초자산 삼은 DLB 발행을 늘려 조달 다변화 추구하는 분위기
총 9조 5,113억원 집계... 작년 연간 규모 대비 35% 넘게 증가... 특히 11월 이후 발행규모는 3조원 웃돌아... 반대로 ELS 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유동성 빠지며 위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